

## 제1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7학년도 15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7.09.29.(금) 16:00~18:30
		장소	K동 206호
안 건	1. 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 점검		
주요내용	<p>- 위원장 : 총 인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p> <p><b>[2017 합의안 진행상황 설명]</b></p> <p>- 위원장 : D동 3층 동아리 전용공간 계획 및 진행사항은 아직 진전이 없다고 함.</p> <p>- (서울)총학생회장 : D동은 수영장 재개방, 디자인밸리, 스마트캠퍼스와 연관된 것들이라고 함. 동아리 전용공간은 올해 안에는 시행되기가 힘든 문제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서 올해안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p> <p>- 위원장 : 동아리 공간에 대한 계획 및 진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함. 수영장은 구조안전진단 진행 중인데, 시설물 부식 등으로 폐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함.</p> <p>- (서울)총학생회장 : 언제 구조진단보고서를 받는지 질의 함.</p> <p>- 위원장 : 곧 나올 것이라 생각함.</p> <p>- (서울)총학생회장 :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학생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함. 구조안전진단 완료 후에 리모델링 건에 대해 추가 논의 하자고 함.</p> <p>- 위원장 : R동 1층 전시 공간은 현재 공사 발주 진행중이라고 함. 공사 내용은 천장 조명 레일과 바닥 도장, 그림 걸이 레일 설치로 10월 12일 현장 설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p> <p>- (서울)총학생회장 : 입찰하는 기업들이 오는 것인지 질의함. 실제 공사는 올해 안에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사용하기 힘들지 않은지 질의 함. 1주일정도 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 시기를 10월 안으로</p>		

맞출 수 있는지 문의 함.

- **위원장** : 입찰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10월안에 공사를 끝내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총선거 전까지는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함.

- **위원장** : 학생휴게실 추가 설치 문제 관련 가능한 공간 리스트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관재팀, 학생지원팀, 기획팀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1. 다음 등심위까지 리스트를 준비할 것을 요청 함. 특히 여학생 안전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함. 미대, 경영대, 법대 등 공간 문제가 예민한데, '휴게실이 여기다', '세미나실이 여기다'라는 확정보다는 이런 요구에 대한 학교의 대책, 대안 마련과 그에 대한 기초 작업이라고 함.

2. 미술대학이라는 홍익대학교의 특수성이 있다고 함. 미술대학 특성상, 학생들이 재료비 등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의 시설 및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함. 목조 및 조소는 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함. 도예유리과는 가마를 떼어서 도자기나 유리를 가공하는데,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몇 백 만원씩 드니까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가마 수리비를 내고 있다고 함. 또한 전시가 수반되는 활동이나 거기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함.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말하며, 교비를 지원하는 것을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은 어떤지 질의 함.

3. 부복수전공자와 자율전공을 늘리는 상황에서 홍익대학교 미대에 부복수전공자들이 몰려 전임교수나 학업공간의 확충이 없기에 주전공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함.

- **위원장**: 미대 들어오면서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등록금만 가지고 공부할 것이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함. 미대하고 같은 등록금을 내는 공대도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함. 공간은 미대에 많이 배려되고 있고, 미대의 공간 운영은 자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함. 실사를 했더니, 졸업생이나 휴학생들 짐을 보관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또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함. 물론 미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점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대 특성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행정 관리적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학습권이 학교가 추구해야 할 근본 목표와 가치라고 함.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함.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작업공간은 한정적이라고 함. 학교가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함.

- 위원장 : A동 101호, 103호에 대한 본부 방침은 경영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경영대와 내부시설을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1. 102호 같은 경우는 실험실습비로 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강의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103호는 기둥이 있어서 강의실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함. 경영대 입장에서는 경영대 실험실습비로 공사를 하는데 경영대 전용공간으로 배정이 아닌 타대학도 사용할 수 공용강의실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의 할 것이라고 함. 경영대에 우선배정하고 남는 시간에 교양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2. 실제로 닫혀있는 창고 같은 강의실이 많다고 함. 신기숙사 지하 4층만 가더라도 텅텅 비어 있다고 함. 잠깐이라도 미활용공간을 개방하여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함. 공간활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학생들도 좋고 학교도 좋다고 함. 공간활용에 대한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이외의 사항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자율로 준다면, 각 학과에서 사용방법을 만들어 올수도 있다고 함.

3. 공간에 대해서 예민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진척이 없다고 함. 특히 미대와 관련된 실기실 문제들은 교학협 때 추가 논의하고,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 함.

- 위원장 :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T동 3층 열람실 리모델링에 대해 논의 하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T동 공사는 유찰됐었는데,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수의 계약 형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안건이 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추가사항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추석 끝나고 중간고사가 있으니, T동 3층은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시행계획이 나와야 그전에 학생들 짐을 빼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함.

- 위원장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행 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추석 끝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알아봐 주길 요청 함.

- 학생처장 : 문화제 관련사항은 학생처에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회장도 알고 있지 않냐고 질의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예산이 얼마 나올지 잡혀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함.

- 학생처장 :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미대 대자보 건으로 인해 좀 지체 되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지금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빨리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함. 기획안은 약 5,500만원이라고 함.

- 학생처장 :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함. 거리미술전은 어떻게 됐는지 질의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거리미술전은 미루거나 취소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함. R동 1층에 전시공간 확보하는데 천장에 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 요구가 많이 줄었다고 함.

- 위원장 : 디자인밸리는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함. 스마트 캠퍼스는 초기 진행 단계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디자인밸리가 진척이 많이 되었다면,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 함.

- 위원장 :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서면으로 주기 힘들다고 함. 현재까지의 계획을 보여주겠으니 추석연휴 후 만나서 얘기하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그럼 디자인밸리가 시행이 내년부터 들어가는지 질의 함. 계획상으로는 18년 6월중으로 착공완료라고 되어있었다고 함.

- 위원장 : 착공완료니까 그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조금 지연되더라도,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 초에 오픈될 수 있도록 요청 함.

- **위원장** :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컨설팅을 통해 준비하고 있고, 세종부총장님이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전담하고 있다고 함. 어제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직 평가편람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어차피 핵심은 전임교원 확보나 교육비 환원율이라고 함.

- **위원장** : 전임교원확보율도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교무처장이 왜 75%로 목표를 정했냐고 질의해서 현재 70%를 조금 넘기에 목표치로 잡은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75%라는 수치보다는 강의 교원확보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함. 현재 수치는 서울은 68%였고, 세종은 72%였다고 함.

- **위원장** : 총학생회 요구안이 73%였고, 그래서 목표를 75%로 하고 추진해 나가자고 정했던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학협이나, 저번 등심위 때도 캠퍼스 자율전공이나 2022년까지 정원감소로 인해 교수충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었다고 함.

- **위원장** : 그것은 아니라고 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 방침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번에 추가 채용된 전임교원 리스트를 요청함.

- **위원장** : 숫자는 드릴 수 있지 명단을 주기는 힘들것 같다고 함. 추석이후 설명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문과대학은 정년이신 교수님이 많고, 강사법 때문에 강사도 잘 뽑지 않은 상황에서 개설강의가 엄청 줄었다고 함. 결국은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로 인한 결원인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의 계획이 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이번 교수초빙계획이 있다고 함. 추석이후에 계획을 따로 설명하겠다고 함.

- **학생처장** : 교무처에서 충원이 필요한 학과가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공문이 오면, 요청이 많을 시, 각 학과 교수님들끼리 어느 분야가 시급한지 회의를 거쳐 충원계획을 잡는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 함.
- **학생처장** : 아마 1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동양학과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1명 아니냐고 질의함.
- **학생처장** : 특수대학원 교수님 3명이 수업 일부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함. 충원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충원 요청을 해왔는데도 충원이 안됐었다고 함.
- **학생처장** : 교수 충원 과정에서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따지고, 학과 내에서 교수님 간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요건에 맞는 교수님을 뽑기가 쉽지 않고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함.
- **위원장** : 특히, 공대와 법대 등에 반해 예술계열은 작품 세계가 있어 더욱 어려운 것 같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의 교수충원 노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함.
- **위원장** : 학과의견을 듣고, 인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엄정하게 충원과정을 거치고, 뽑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장한다고 함.
- **학생처장** : 지원자 수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우수한 교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지원자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는지, 지원자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는지 질의 함.
- **학생처장** : 동양학과의 경우는 대체로 그러한 것 같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매년 총원해 달라고 학생들이 요구해왔고, 학과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총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토로 함. '노력 중이다.' 등으로 학교는 매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가 과연 총원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함. 교수총원 의지를 나타내는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 함.

- 위원장 : 인사의 엄정성 등으로 예민한 내용이라 전부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함. 교무처장이랑 협의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총학생회장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강사법 시행 때문에 강사를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는 게 지금 학교의 정책인데, 트렌드에 예민한 미대를 어떻게 발 맞춰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학교가 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함. 강사를 일률적으로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것이 미대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함.

- 학생처장 : 총학생회장 말이 전체적인 틀에서 맞다고 함. 하지만, 학교에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의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경영에 대한 부분도 이해한다고 함. 학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제가 바라는 바는 정부정책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학교의 대책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함.

- 학생처장 : 현실에 맞게 대비책을 세우는 건 각 과가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함. 조소과 같은 경우에는 겸임교수를 최근 트렌드에 맞는 젊은 교수를 채용하려고 한다고 함. 각 과마다 특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 제도 내에서 학생들 요구에 발맞춰서 각 학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디자인밸리, 교원 총원 등 설명을 듣기 위해 다음주 수, 목요일 쯤에 방문 하겠다고 함.

- 위원장 : 교육환경개선 집기 구입은 구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기자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의 함.

- 위원장 : 기자재는 학사부총장하고 논의했고,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학협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10월 17일이나 18일에 교학협개최를 요청 함.

- 위원장 : 좀 지나서 할수 있는지 문의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제 학생회 총선거가 있어 준비도 해야하고, 중간고사 전에 했으면 한다고 함.

- 위원장 : 17이나 18일로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확인하고 확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17, 18, 19일 중 이틀을 택해 하나는 교무학사 소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안건은 학교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특히 도예유리과 가마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방식이 조금 바뀌면 어떤지 질의 함.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걸로 해서 가면 좋고, 어차피 교육환경개선 집기비품을 구매하는 것이랑 동일하다고 함.

- 위원장 : 군 E-러닝 시행은 학칙 변경이 완료돼서, 2018학년도 3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방문/교환 학생 관련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질의 함. 국제협력본부의 추진 계획이나 운영방식도 질의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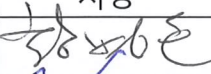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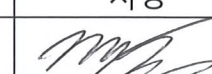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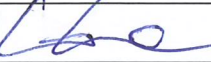


- 위원장 : 아직 조직만 만들어졌다고 함. 학생들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류학생 확대는 국제교류본부장이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함. 교류학생은 교환과 방문이 있는데, 교환학생은 교류학교 학생과 우리학교 학생의 요청이 둘다 있어야 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방문학생의 경우 부담 금액이 크니 지원을 높여주기로 합의 했었다고 함.

- 위원장 : 장학금으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라, 장학팀 하고 협의하여 확대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다음 회의는 구조안전진단의 명확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A동, R동2층, T동3층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함. 또한, 2학기 교육환경 개선 추진을 1학기 교육환경개선이 끝나고 바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함. 특히 미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열악한 부분이 많고,



	<p>개인적인 지출도 많으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교학협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자고 함.</p> <p>- <b>위원장</b> : 미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함.</p> <p>- <b>(서울)총학생회장</b> : 교학협 전에 총장님 면담요청을 통해 예술제, 교육환경개선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총장님께 직접 요구를 한다고 함.</p> <p>-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p>					
참석위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황 병 돈		위 원	장 상 희	
	위 원	고 경 호		위 원	이 수 환	
	위 원	전 성 표		위 원	조 민 우	
	위 원	정 교 범		위 원	유 재 호	
	위 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5명	불참	4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7.10.13.	